『혼불』과 <아바타>의 탈식민성 연구

서 철 원 (전북대)

< 목 차 >

1. 서론
2. 문학과 영화 장르의 문화적 지향성
3. 매안의 '청암'과 판도라의 '에이와'
4. '동일자'의 저항과 디스토피아의 양가성
5.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소설 『혼불』과 영화 <아바타>를 대상으로 비교/대조 관점에서 탈식민적 성격에 대해 해명하고자 한다. 『혼불』과 <아바타>를 탈식민주의라는 공통된 화제로 묶을 수 있는 요소는 여성성 혹은 모성성을 유인자로 하는 현실 극복에서 찾을 수 있다.

『혼불』의 경우 청암부인에서 발견되는 '대모신'의 지위와 입장을 통해 접근하고자 한다. <아바타>는 나비족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에이와'를 통해 '궁극의 어머니' 영역에 접근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은 식민자로부터 폭력적으로 강요된 식민 개척 현실에 대한 '피식민자'로서의 저항인 동시에 '단일한 이해'로부터 벗어나 문학과 영화 텍스트에 대한 이해의 측면에서 『혼불』과 <아바타>가 '탈식민주의와 관련한 계보'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 대모신, 궁극의 어머니, 전통의 복원, 민족정체성, 혼불, 아바타, 청암, 에이와

www.kci.go.kr

1. 서론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는 접두사 ‘포스트(post)’에 관한 용어의 관점에서 그 계보를 추적할 수 있다. 이경원에 의하면, ‘post’를 ‘이후(after)’로 보면 식민주의의 연장으로서 ‘유산(遺産)’으로 간주된다. ‘초극(beyond)’의 의미로 해석하면, 직면한 식민주의에 대한 극복 혹은 저항의 문제와 연결된다.[1)]

탈식민주의는 ‘식민주의에 대한 역사·사회·민족 형태와 그 질료를 포함’[2)]하고 있다. 근대화 과정에서 주권자를 억누르고 침탈하면서 발생한 폭력적 지배 상황에 대한 현실 저항과 식민 극복의 실천적 지평으로 떠오르면서 과거 식민 상황을 거친 국가들로부터 이념적 틀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피식민자의 역사·언어·문화·관습 등 전통에 대한 지배 논리가 깔려 있다. 이것을 정치·문화·역사의 본질 면에서 규명하는 것이 탈식민주의 이론적 배경인 것이다.

탈식민주의 이론에 대한 관점은 동양과 서양의 구분이라는 문화·역사적 근간에 바탕을 둘 수밖에 없으며, 동일시하여 명제화하면 할수록 서로 어긋나고 엇갈리며 다른 시각을 양산하는 오류가 드러난다. 따라서 탈식민주의 관점은 동양이 지켜온 굳건한 문화·역사의 국면이 서양의 제국주의적 본성에 맞서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어왔는가에 대한 진실성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이론인 것이다.

이와 같은 이론은 최명희의 『혼불』과 제임스 카메론(James Cameron)의 <아바타>에도 적용된다. 또한 『혼불』의 문학적 해명과 <아바타>의 영화 텍스트의 성격을 규명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혼불』의 경우 ‘근대’ 인식의 문제에 있어 한국문학의 전통을 확립하는 필

1) 이경원, 『검은 역사, 하얀 이론』, 한길사, 2011, 23면.
2) Robert Young, 김택현 역, 『포스트식민주의 또는 트리컨티넨탈리즘 Postcolonialism : Historical Introduction(2001)』, 박종철출판사, 2005, 39면.

www.kci.go.kr

수적인 요소로 '한국인의 정서를 반영하는가 하면, 당대 사회현실에 대한 자각으로서 우리의 전통·역사·설화 등 다양한 양식이 소설 전반에 투영'[3]되어 있다.

<아바타>는 불구의 제이크 설리(Jake Sully)가 '판도라(Pandora)'[4] 행성의 '나비(navi)' 종족의 영토 안으로 들어가면서 시작된다. 이 과정에 제이크는 판도라의 전통과 마주하게 된다. 나비족의 이상적인 세계가 제이크 설리로 하여 '아바타'라는 체험의 공간으로서 판도라의 영토 안으로 편승될 때 그 세계는 얼마나 풍성해지고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5]

이러한 관점은 식민자로부터 폭력적으로 강요된 식민 개척 현실에 대한 '피식민자'로서의 저항인 동시에 단일한 이해(understanding)로부터 벗어나 문학과 영화 텍스트에 대한 이해의 측면에서 『혼불』과 <아바타>가 '탈식민주의와 관련한 계보'[6]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혼불』과 <아바타>를 탈식민주의라는 공통된 화제로 묶을 수 있는 요소는 여성성 혹은 모성성을 유인자로 하는 현실 극복에서 찾을 수 있다. 『혼불』의 경우 청암부인에서 발견되는 '대모 원형(Great Mother Archetypes)'[7]

---

3) 서철원, 『『혼불』의 탈식민성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6, 40면.

4) 판도라(Pandora)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초의 여성을 의미한다. 유명한 일화로 소개되는 '판도라의 상자'는 인류의 불행과 희망의 시작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판도라'라는 이름은 '모든 선물을 받은 여인'으로, 지상에 내려가기 전 신들이 그녀(판도라)에게 선물을 준 것에서 유래한다.

5) 박우진, 「보지 않기 위해 보기, 몽상 혹은 쓰나미로서의 새로운 영화 : 한국의 미디어 지형 속에서 <아바타> 찾아가기」, 『아바타 인문학』, 자음과 모음, 2010, 16면.

6) 탈식민주의를 넓은 의미에서 식민주의의 극복을 위한 담론이라고 정의할 때, 그 실천의 주체에 따라 탈식민주의 계보는 달라진다. 분명한 것은 식민 개척의 시기에 제국주의의 폭력적인 침탈에 대한 저항과 극복의 주체를 '피식민자'로 규정한다. Bart Moore-Gilbert, 이경원 역, 『탈식민주의, 저항에서 유희로 Postcolonial Theory: Contexs, Practices, Politics』, 한길사, 2001, 21-31면 참조.

7) 인간의 무의식에 내재한 원형적 이미지로서 세 가지 범주의 '어머니 유형'에 대해 노이만(Erich Neumann)은 첫째, '무서운 어머니', 둘째, '대모(Great Mother)', 셋째, '좋은 어머니'로 분류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원형은 어머니에 대한 보편적이면서 응집력 있는 어머니 상을 구축하면서, 이 가운데 '대모원형(Great

www.kci.go.kr

으로서 '대모신(Great Mother of the Gods)'의 지위와 입장을 직접적인 단서로 볼 수 있다. <아바타>에는 '사헤일루(Tsaheylu)'[8]를 매개로 한 나비족의 유전적·집단적 공동체의 최상에 올라 있는 '에이와(Eywa)'[9]의 존재에서 공통된 정서·감성·사유를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청암부인과 에이와의 존재는 '궁극의 어머니(Great Mother Goddess)'[10]라는 대모신의 영역과 적극적으로 소통되며 상호 의미심장한 접근성을 지닌다.

문학과 영화, 즉 장르가 다른 두 영역의 공통된 접점은 『혼불』의 식민 저항과 <아바타>에서의 인류 제국주의 저항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배경으로서 탈식민의 감성은 각각의 텍스트 내부에 존재하는 '대모신'을 중심으로 하여 식민 극복의 단초를 제공한다.

대모신 원리에 비추어 볼 때, 『혼불』은 일제강점기 식민주의 비판과 극복의 의미가 청암부인의 '대모신'과 관계하여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Mother Archetypes)'이란 양쪽 극단의 선과 악의 속성을 공유한 통일적 형태의 궁극적인 어머니를 가리킨다. Erich Neumann, 서승옥 역, 「원형적 여성과 대모」, 『페미니즘과 문학』, 문예출판사, 1988, 195면.

8) 영화 <아바타>의 경우 판도라 행성의 모든 종족과 나무, 말과 새와 같은 생물의 군집이 '사헤일루(Tsaheylu)'라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에이와의 나무, 즉 '영혼의 나무'라고도 불리며, 모든 생물과 생물 간의 소통을 구성하고 교감을 주고받는 인터페이스(interface) 역할을 담당한다. Maria Wilhelm·Dirk Madison, 김현중 역, 『아바타 : 판도라의 역사와 생태에 관한 기밀 보고 Avatar: a confidential report on the biological and social history of Pandora』, 랜덤하우스코리아(주), 2010, 47면.

9) '에이와(Eywa)'는 판도라를 다스리는 신의 역할과 에너지의 원천을 의미하는 영적 존재를 가리킨다. 에이와 여신은 바빌론 신화에서 제2의 여신 '에아(Ea)'와 그리스 신화에서의 대지의 여신 '가이아(Gaia)'를 합친 궁극의 어머니로서 영화 <아바타>의 나비족에게는 일종의 '대모신(Great Mother of the Gods)'을 가리킨다. 김호영, 「영화 <아바타>에 나타난 신화성 연구」, 『인문연구』 72, 2014, 538면.

10) '궁극의 어머니(finality mother)'는 모든 유전적 태생을 이어가는 생물들 간의 유기적 결속과 이를 바탕으로 하여 나타나는 모성성을 기초로 한다. 이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소통의 원류인 이성·감성·교감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저마다 생물들 간의 생존의 질서에 있어 감성적 분할과 이성적 판단을 원천으로 한다. 또한 오랜 시간대에 걸쳐 형성된 유전적 기질과 유기적 화합·결속이 의미를 품고 있는 '대모신'을 가리킨다.

www.kci.go.kr

<아바타>의 경우 에이와의 '궁극의 어머니', 즉 '대모신'을 통한 인류 제국주의 침탈에 대한 저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모신'은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모성 중심의 생태 뿐만 아니라, 자연의 생명력을 포괄하는 우주적 원리에서의 어머니를 지향한다.[11]

본 연구는 '대모'의 원리와 역할에 근거하여 『혼불』과 <아바타>의 탈식민적 성격에 대해 해명하고자 한다. 여기에 대한 시각은 『혼불』의 작중인물과 연결된 독자의 관점이 중요한 요건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아바타>의 경우 관객의 관점에서 영화 속 판도라 행성에 존재하는 나비족의 행로를 따라갈 때 연구의 시각도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2. 문학과 영화 장르의 문화적 지향성

과거 우리 민족의 역사를 다룬 문학과 먼 외계 행성의 저항을 다룬 SF(science fiction) 영화 사이에는 일정한 유형의 접점을 필요로 한다. 두 장르 간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접근의 당위와 소통의 절차 또한 적합해야 된다. 문학과 영화의 장르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텍스트 내부적으로 존재하는 인물 혹은 캐릭터(character)의 접근성은 언어・문화・전통의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으로부터 구성된다.

이러한 추론은 두 장르의 벽을 허물기 이전에 개별 장르가 지닌 특수성을 인지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견된다. 여기에는 접근성의 문제가 본질에 앞서 명백한 문제의식을 안고 있으며, 세계 인식은 내부와 외부의 '부조리한 감성(irrationality emotion)'[12]에 의해 분할될 때보다 객관적인 세계관을 획

11) Erich Neumann, 서승옥 역, 앞의 글, 195-197면 참고.

12) 우리 삶에는 아주 다른 관점의 이야기가 존재한다. 이것은 바깥에서 바라본 이야기, 즉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저마다의 이야기를 의미한다. 종(種)으로서 우리는 우주 가운데 눈에 띄지 않는 은하계 안의 부분적인 피조물일 뿐이다. 기나긴 우주의 역사에서 인간 종의 존속은 유한하며 그리 길지도 않다. 이때 가장 근

www.kci.go.kr

득할 수 있게 된다.

문학과 영화 텍스트는 개별적인 양식·양상에서 유인되는 문제의식을 통해 관점의 위치, 문화·사회·역사라는 폭넓은 세계 인식의 큰 틀 위에 적용된다. 관점의 정확한 각도나 이것을 벗어난 잉여의 편차에 따라 인지의 폭이 축소되거나 확장될 수 있는 소지는 존재한다. 이와 같이 특수하게 공유되는 환경을 추론하거나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은 보편화된 인류학적 세계관에서 출발한다.

『혼불』에서 일제강점기 식민지 삶의 환경과 <아바타>에서 판도라 행성의 나비족의 삶의 방식은 제국주의로부터 피해자라는 공통된 감성을 지닌다. 『혼불』과 <아바타>의 상호텍스트성에 비추어 볼 때, 식민주의에 대한 저항과 극복의 의미는 개별 텍스트 내부에서 발원하는 '전통'의 공통된 감성 혹은 기호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청암부인과 에이와의 존재론적 분할에서 일정한 유형의 모성성이 뒷받침되고 있으며, 이것은 문학과 영화 텍스트의 근원적인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사람들은, 여름밤이면 이 냇기슭 천변으로 몰려 나왔다. 노인들은 버드나무 아래 평상을 끌어다 내놓고 부채질을 하면서 기우는 별자리를 바라보았고, 젊은 사람들은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용소의 위쪽에서는 남자들이 자멱질을 하였다. 여자들의 자리는 용소 아래쪽이었다.
>
> 달이 없는 밤에는, 수면 위에 미끄러지는 별빛이 등불이 되어 주었고, 달이 뜬 밤에는 물 소리가 달빛을 감추어 주었다. 사람들은 상쾌한 비명을 지르며 물소리에 섞여 휩쓸려 들어갔다. 그때 천변에까지 울려오던 낭랑한 웃음소리. 한 무리의 사람들은, 물속에서 나와 냇가의 자갈밭에 앉아 있기도 하였다.[13]

본적인 철학적 문제-삶의 의미라는 문제-에 있어 인간을 하찮은 존재로 만드는 우주에서 우리의 존재 의미를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존재 의미에 관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자신에 대해 갖는 두 가지 관점의 이야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한 가지이지만,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의 양자적 측면에서 '부조리한 감성'이 발생되며, 이것은 안과 바깥이라는 분할된 구조에 의해 이야기된다. Mark Rowlands, 조동섭 외, 『SF 철학 The philosopher at the end of the universe』, (주)북새통, 2005, 16-17면 참조.

13) 최명희, 『혼불』 제2권 제1부 <흔들리는 바람>, 한길사, 1996, 166면. 본 연구에

www.kci.go.kr

『혼불』의 별자리보기는 사람들로 하여 일상의 시름과 고단함을 달래주는 안식·휴식의 생활상을 반영하고 있다. 아버지의 그 아버지로부터 자손의 자손들에게까지 별을 물려주고 별과 더불어 살아온 내력에서 평생의 순환이 그려진다.

사람들 삶 가까이 항상적으로 존재하는 별자리는 예부터 동경과 모험의 세계관을 선사하였다. 인간 삶의 방식에 시간의 개념을 일깨우는 근본조차도 별에서 얻어왔다. 그 가운데 사람들과 가장 친숙한 별은 '해'와 '달'이다. 인간의 사계(四季)를 조율하는 근원이 '해'로부터 물려 받았다면, 이를 굽어보고 살피는 것이 '달'이다.

달 뒤편의 별무리는 볼 수도 없거니와 단 한번 인류가 발을 내딛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다. <아바타>는 『혼불』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 그 너머 미지의 세계, 판도라 행성의 일상 속으로 이끌어 간다.

> 아득한 저 멀리, 흑단 같은 어둠 속에 보석처럼 순수한 빛을 발하는 별이 있다. 판도라라고 불리는 이 별의 하늘에는 지구에서와 다를 바 없는 새털구름과 양떼구름, 뭉게구름이 유유히 흘러 다닌다. 대지 위에는 마시고 씻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이 넘쳐난다. 300미터 높이의 나무들이 우거진 숲 속에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화려하고 신기한 동식물들이 있다. 지구에서는 볼 수 없는 스톤 아치와 할레루야 산, 생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형광빛은 경의로움의 극치다. 그리고 이 별의 모든 생명과 조하를 이루며 나비족이 살고 있다.[14]

판도라 행성은 인류의 발생지인 지구와 아주 흡사한 자연 구조를 보여준다. 인간 종(種)에 대치되는 '나비' 종족이 살고 있는 이 별은 영화 텍스트 안에서도 신비로운 자연경관과 '화려하고 신기한 동식물'이 공존하는 세계로 안내한다. 가상 환경 안내자(virtual environment navigation)로서 나비족의 '나비(Navi)'[15]는 '길잡이(Navigation)'의 약어이다. 이들의 존재는 영화 내부

서는 1996년 출간된 '한길 완간본(서정섭, 「『혼불』의 수정 과정과 언어 고찰」, 『혼불의 언어세계』, 혼불기념사업회·전라문화연구소, 2004, 199면.)' 『혼불』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14) Maria Wilhelm 외, 김현중 역, 앞의 책, 9면.

www.kci.go.kr

에 드러나다시피 자신들이 살고 있는 판도라 행성의 생태환경과 삶의 방식을 인류에게 자세히 안내해 주고 있다.

'지구에서와 다를 바 없는 새털구름과 양떼구름'이 떠다니는 이 별은 『혼불』의 작중인물이 밤마다 별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 혹은 '위치'의 자연조건과 동일한 환경을 보여준다. 보는 위치에 따라 별은 얼마든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아바타>는 시각을 포함한 오감이 극도로 발발한 판도라 행성을 무대로 하여 인간 문명에 대한 다른 차원의 시각을 전달한다.

판도라 행성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품은 별이다. 근대화와 개척의 의미가 필요하지 않은 공생의 생태가 이루어진 곳이다. 이것은 인간이 오래도록 품어온 생존 방식의 한 가지 대안이거나 방법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혼불』의 별은 일제강점기 폭압적인 현실에 대한 이상향으로서 별을 지향하고 있다.

> 인간이 태어날 때, 하늘에서 살성(殺星)이 비치면 열두 가지 살(煞) 중에 어느 화살인가를 맞게 된다지. 그래서 조실부모(早失父母)하거나, 불구의 몸이 되거나, 가산을 잃고 식구가 흩어지며 고질 신병(身病)을 앓게 된다.
>
> 그러나 복록이 무궁한 사람에게는 길성(吉星)이 비친다. 한평생의 부귀공명을 예언해 주는 그 별은 누구의 머리 위에 뜨는 것이랴.
>
> —『혼불』 2권 168면

전통적으로 점성술(占星術, astrology)의 기원은 인간 삶의 재앙과 액운을 내다보고 예언하는 기능을 지닌다. 별과 더불어 나고 자라고 죽어가는 일련의 과정이 별 속에 정해져 있다는 점성술은 그 의미가 별과 사람의 소통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천변(天變)의 원리는 저녁 때 하늘에 떠올라 새벽에 지는 별무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우주의 대기를 따라 흐르는 생명의

15) <아바타>에 등장하는 푸른색 몸의 나비족의 '나비'는 '선지자' 혹은 '예언자'를 뜻하는 헤브라이어 나비(Nabi)를 지시한다. 명칭으로는 미래를 내다보는 '선지자', '예언자'의 의미를 담고 있다. 영화 <아바타>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길 안내자'로서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김호영, 앞의 논문, 2014, 533면.

www.kci.go.kr

영속성을 의미한다. 별보기 전통은 주로 해양민족 사이에 전해온다. 별의 형상과 세기, 연동하는 위치에 따라 국가적 안위와 사람들의 길흉을 점치는 점성술은 현재에도 명맥이 이어져 오고 있다.

『혼불』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별자리보기를 통해 역사·풍수·천문학적 지식과 선조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감성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는 별자리마다 배어든 경험적 산물이 전통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의 액운을 감지하도록 하고 길흉을 예감하도록 하고 있다.

별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멀리에서나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아바타>의 판도라 행성이 비록 영화 텍스트로 존재하는 가상의 별이라고 하여 이 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별은 보이지 않아도 언제든 우주 너머에 존재해 왔고, 인간의 삶의 방식과 긴밀하게 이어져 가고 있다.

> 지구로부터 4.37광년 떨어진 알파 센터우리는 태양계와 이웃하는 항성계이다. 알파 센터우리 A, B, C 가운데 판도라는 A항성계에 속한 별로 행성 폴리페모스의 위성이다. 알파 센터우리는 판도라 행성에 태양과 같은 역할을 한다.
>
> 판도라가 공전하며 폴리페모스의 위성에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판도라에는 조력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주기적으로 대륙 이동과 대륙판 충돌, 격렬한 화산활동이 일어난다. 때문에 판도라의 기후는 온화하다.
>
> 판도라에는 지구에서 볼 수 있을 법한 계곡이나 산봉우리, 해변, 호수 등이 있다. 하지만 지하에 매장된 언놉타늄이 지닌 자기적 성질로 인해 놀라울 만큼 다양한 지질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할레루야 산과 스톤아치다.[16]

상상의 별 판도라의 환경은 지구의 환경과 유사한 구조를 지닌다. 인간의 상상력이 다가갈 수 있는 최소와 최대치의 중간에 위치하는 그곳은 영화 내부적으로 견고하게 고안된 생태를 보여준다.

지구로부터 4.37광년 떨어진 알파 센터우리(Alpha Centauri)A의 폴리페모스(Polyphemus)는 실제의 별이다. 가상의 위성으로 판도라로 존재한다. 판도

16) Maria Wilhelm 외, 김현중 역, 앞의 책, 21면.

www.kci.go.kr

라에는 자기장을 밀어내거나 안에 가둘 수 있는 고온 초전도체 자연 생성 물질 '언놉타늄(Unobtainium)'[17]이 매장되어 있다. 인류의 연료 절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광물이다. 이것이 인류를 저 먼 곳 판도라까지 부르게 된 이유이며, 우주 식민지 개척에 나서게 된 배경이다.

판도라 행성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동식물・광물・산이 존재한다. 인간의 접근을 거부하고 '샤헤일루(tsahaylu)'[18]의 힘으로 나비종족과 자연은 하나의 신경계통으로 연결되어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신비로운 것은 '스톤 아치(stone arches)'와 '할렐루야 산(hallelujah mountains)'이다.

대기 중에 떠다니는 '할렐루야 산'은 나비족의 신성한 영역으로 땅과 하늘 중간에 섬처럼 존재한다. 이 산은 판도라의 지하에 매장된 언놉타늄의 자기력을 말해주는 직접적인 단서가 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혼불』의 별보기 전통과 <아바타>의 판도라 별은 '바라보기'와 '생존하기'라는 정반대의 입장에서 관찰되고 있다. 이것은 『혼불』 내부적으로 살아가는 작중화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별과 <아바타> 안에서 생존하는 캐릭터가 인식하는 판도라의 실체는 다를 수밖에 없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바라보기'와 '생존하기'의 별에 대한 입장은 상호 삶의 방식에 대한 주체

17) 고온 초전도체는 20세기 초 처음으로 활용되었으나, 물질 고유의 불안정선으로 인해 당시에는 쓸모없는 기술로 인식되었다. 언놉타늄(Unobtainium)은 녹는점인 1,516℃까지 초전동성을 유지하며, 지구의 초전도 물질보다 1,000배 강한 자기장 반발력을 가지고 있다. 앞의 책, 35면.

18) 나비족의 머리카락 끝에는 '큐(queue)'라는 덩굴손처럼 뻗어 나온 신경계를 지니고 있다. 큐는 나비족이 다른 계통의 생명체를 직접 연결시켜주는 '촉수(tentacle)' 역할을 한다. 나비족은 큐를 통해 다른 생명체(동식물)의 힘과 움직임, 감정 등을 알 수 있고 알려준다. 즉, 소통과 교감인 것이다. 촉수와 촉수를 상호 연결시켜 교감하는 이 방식을 나비족의 언어로 '샤헤일루(tsahaylu)'라고 한다. 이것은 나비족 뿐만 아니라 판도라 전체를 감싸고 있는 신경 네트워크, 에이와에 접속을 통한 교감의 완성을 이루게 된다. 이 샤헤일루의 접속 방식을 통해 판도라의 신경 네트워크에 접속하면 판도라의 모든 생명체가 축적하고 있는 지혜와 감정, 사고와 지식을 전송받을 수 있다. Maria Wilhelm 외, 김현중 역, 앞의 책, 47면.

www.kci.go.kr

적 권리를 의미한다. '바라보기'와 '생존하기'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어느 한 쪽이 단절되거나 억압당하면 그에 대한 극복은 피식민자의 저항으로 일어난다. 이것은 생명과 직결되며 전통·역사와도 관련이 깊다.

『혼불』의 밤하늘에 보여주는 '별'의 존재는 작중인물들이 전통적으로 이어온 삶의 목적에서 어긋남이 없는 소망과 바람의 기호이다. <아바타>의 별은 나비족의 삶의 터전을 말해주는 직접적인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 삶의 자유가 박탈당할 때, 그 삶의 목적도 생존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 주목할 때, 문학과 영화 텍스트 간에 나타나는 별에 관한 문화적 입장에서 그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혼불』의 등장인물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과 <아바타>의 영화 텍스트 내부에 존재하는 캐릭터의 역사 문제로 귀결된다.

3. 매안의 '청암'과 판도라의 '에이와'

『혼불』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여건'[19]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소설로 볼 수 있다. 즉, 해방 전 일제강점기 자체를 시대배경으로 하여, 당대 우리 민족의 전통·민속에 비추어 일본의 식민화/지배의 측면을 고발하는 문학인 것이다.

<아바타>의 경우, 인류 식민자의 폭력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나비족의 노력은 『혼불』에서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경험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피식민자는 식민 개척자로부터 정치적·경제적 박탈과 문화적 주변화를 통한 '상처의 산물'에서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직관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주변부'의 저항 담론에는 구체적인 사건과 이를 둘러싼 인물들

19) '식민지 여건(colonial conditions)'은 식민주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관계가 '지배와 피지배' 혹은 '착취와 억압'에서 일어나는 모순 상황을 말한다. 여기에 『혼불』의 배경 요소로서 '창씨개명', '단발령', '흰옷금지' 등과 같은 식민지 사회현실의 억압과 모순 전반을 의미한다. 서철원, 앞의 논문, 36면.

www.kci.go.kr

이 존재한다. 우선 『혼불』에서는 매안마을 양반층과 거멍굴·고리배미 민중을 하나로 잇는 '전통의 복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매안·거멍굴·고리배리를 연결하는 상위의 개념을 전통의 유인자에서 얻을 수 있다고 볼 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인물은 청암부인이다. 청암의 역할은 매안이씨 종부로서 마을을 이끄는 어른뿐만 아니라 전통의 복원과 마을의 결속을 이끄는 주체로서 대모(大母)의 자격을 갖춘 인물이다.

> 비명(非命)에 안 가도 죽음은 설운 것인데, 하물며 제명에 못 죽은 원혼들의 원통함이야 달리 일러 무엇 하리. 육십갑자 간지마다 원혼들의 곡성이 낭자하여, 목 놓아 우는 소리 이승을 적시고 구천에 울린다.
>
> 어와아, 세상 천지 사람들아.
>
> 이 내 원한 맺힌 마음 세세히도 풀어내어, 만리장성 펼친 듯이 구구절절 읊어 주소. 가련하고 불쌍하다. 이 세상이 원수로다.
>
> —『혼불』 제2권 105면

청암부인은 '망혼제(亡魂祭)'를 통해 무변광대한 우주 가운데 가장 미묘하면서도 신비한 존재를 가리켜 인간이라 말한다. 우월한 존재인 인간도 맺힌 원한과 불운한 인생의 길목에 서면 우주 만물 가운데 '풀잎' 같고 '바람' 같은 한갓 미물로 사물화되어 육십갑자(六十甲子)라는 삼라한 그릇에 담기게 된다.

육십갑자. 여기에는 천지자연의 이치와 도리가 스며 있고,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의 천리가 숨겨져 있다. 또한 수(數)를 산출하여 경지에 이르게 하고, 방각(方角)을 일러 방위와 지리를 탐색케 한다. 이 모두 육십갑자의 그릇에 담겨 있으니, 사람의 나고 듦이 한갓 이슬 같고 바람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원혼들의 비통함을 우주 만물, 육십갑자라는 그릇에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작중화자의 의도는 구천에 울리는 인간 세상, 즉 '이승'의 일에 있다. 여기서 '이승=땅'은 일제강점기 '창씨개명'과 같은 식민화 정책의 주변부로서 매안마을을 의미하지만, 거시적으로는 조선 전체를 의미한다. 땅에 붙박힌 '매안

www.kci.go.kr

마을=가문'이 강수와 진예의 '상피'라는 가문의 금기에 의해 강수의 '자결'이라는 가문의 금기로 대체되면서 '이승=땅=조선' 전체가 망혼(亡魂)을 올려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여기서 '상피'와 '자결'이 지시하는 가문의 좌절 상황은 '육십갑자 간지'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전근대적 발상을 의미하지만, 그 너머에는 청암부인으로 하여 이 모두를 굽어보고 살펴보게 하는 대모의 자격과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이기채가 지닌 선비적 품성은 오히려 청암의 존재를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인물로 나타나는가 하면, 이율댁의 셋째 며느리 인월댁의 경우 열아홉에 시집와 역마살(驛馬煞) 있는 '기서'의 아내로 홀로 긴 날을 살아 온 인물상을 보여준다. 여기서 인월댁의 존재는 청암부인과 관련하여 남편의 부재에 대한 지향점과 주권 부재로서 억눌린 현실 상황을 대변한다. 따라서 인월댁에 대한 청암부인의 인정은 가부장 부재 상황에서 여성성의 발현인 것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 청암부인은 정치적 표상(representation)에 유동하는 가부장으로서 여성의 삶을 지향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바타>의 나비족은 단일한 신경계를 통해 판도라의 신성한 영적 존재 '에이와'와 직선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연결 의미는 정서적 유대와 '언어'[20]적 소통의 교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심지어 이들의 문명화되지 않은 원시적인 도구와 이동수단 등 삶의 방식 전반이 궁극의 어머니를 표상하는 에이와의 접속을 통해 구성된다.

---

20) 제임스 카메론은 영화 <아바타>의 각본을 쓰는 동안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의 언어학자 폴 프로머(Paul Frommer)는 폴리네시아와 아프리카어를 섞어 나비족의 언어를 만들었다. 이것은 언어학자 마크 오클란드(Marc Okrand)가 영화 <스타트렉(Star Trek)>의 클링온이라는 외계종족의 언어, 즉 클링온어(Klingon Language)를 만들어 극중 사실감을 부여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였다. 이 외계 언어는 단순히 영화의 사실성 부여에 그치지 않고 일반적인 언어에서 발견되는 체계적인 문법를 토대로 창조되었다. Rebecca Keegan, 오정아, 『제임스 카메론, 퓨처리스트 The Futurist』, 21세기북스, 2011, 345면.

www.kci.go.kr

> 나비족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는 '균형'이다. 이들의 삶은 육체와 정신, 영혼의 균형을 통해 이루어진다. 나비족이 부족이나 계급을 형성하는 이유도 판도라 세계와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다. 판도라는 나비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한다. 나비족은 풍요로움을 바탕으로 번성해왔다. 나비족은 판도라가 베푸는 관대한 사랑을 소중히 여긴다. 이들은 판도라 전역에 살고 있으며, 평야에 머무르는 '다이어호스 부족'과 숲에 사는 '숲 부족' 등 각자의 색채를 지닌 다양한 부족이다. 모든 생명체들이 서로 유기적이고 지연적인 조화를 이루며 사는 판도라에서는 인구과잉, 빈곤, 거주지 부족 따위의 개념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이해되지도 않는다.[21]

나비족의 생존 방식은 인류의 삶의 방식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나비족의 평균 신장은 3미터이며, 연한 초록색 피부, 고양이 같은 눈, 물건을 잡을 수 있는 꼬리, 다른 생명체와 교감을 나눌 수 있는 '큐(queue)'를 가지고 있다.

이들의 생존방식은 철저한 공동체의 실천에서 시작된다. 종족과 종족의 유대, 종족과 동식물의 교감, 자연과 생명체의 결집·소통은 샤헤일루의 신경계 접속을 통해 에이와의 영적 저장고에 축적된다. 이러한 생존 방식은 새로운 문명을 개발하며 미지의 영토를 개척하는 인류의 생존 전략과 육체·정신적인 측면에서 대별된다.

에이와의 영적 저장고는 판도라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의 생명 인식과 죽음의 정착지이다. 나비족에겐 삶과 죽음이 육체적으로 분화될 뿐 그 영혼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에너지'와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죽음에 이르렀어도 그 정신의 에너지는 에이와의 존재 저편에 충전되면서 강한 전통을 물려주며 강인한 생명력을 이어간다.

이와 같은 생존 전략은 인류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와 접속되어 있다. 겉으로는 원시적인 부족 형태를 취하고 있는 나비족의 본성은 애초부터 인류가 도달할 수 없는 초인류의 지점에 머물러 있다. 그 간극은 별과 별의 거리보다 더 먼 곳으로 뻗어가 있으며, 그들 내면의 전통적인 기류는 인류의 사유 밖에 형성된 유토피아(Utopia) 그 자체인 것이다.

---

21) Maria Wilhelm 외, 김현중 역, 앞의 책, 43면.

www.kci.go.kr

『혼불』의 경우 창씨개명에 대한 청암부인의 의도는 정치적 텍스트를 시대 상황에 대한 정서·감정·사유의 폭을 비정치적 감성에 호소하는 최명희의 작가의식에서 발화된다.

> 이기채는 기표에게 묻는다.
> "그랬다고 합니다."
> "창씨하러 가서 그랬다던데 무슨 연고였던가?"
> "그 사람이 장난을 좀 한 모양이에요. 일본 황실의 성과 이름을 따서 적당히 와까마스 진(若松仁)이라고 했다고, 능멸한 죄로 유치장까지 들어갔던 게지요."
> 청암부인이 허리를 펴며 혀를 끌끌 찬다. 양미간이 깊이 패인다.
> 이마에 땀이 배어나는 것은 초하의 더위 탓만은 아니었다.
> —『혼불』 제1권 211면

일제강점기 식민주의 실상은 창씨개명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여기에 청암부인은 오랜 세월 인고를 견디어온 인물로 '땀'이 흐르는 '미간'에 조선인의 안타까움을 담아낸다.

반면 이기채는 일본 황실의 성과 이름을 딴 '와까마스 진(若松仁)'이라는 성과 이름을 통해 일본 황실을 비웃는다. 이것은 일종의 '흉내내기(mimicry)'이다. 바바(Homi K. Bhabha)의 '흉내내기'는 제국주의가 지향하는 식민주의의 거대한 담론을 분열시키는 과정에 힘을 얻는 '조롱'(mockery)의 형식이다.[22]

청암부인은 '미간'에 '땀'을 담아 냄으로써 '면장'과 '주재소 순사'로부터 무작위로 바뀐 조선인의 성씨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낸다. 이어지는 '유건영의 자결' 소문에, 사람의 성씨는 '피'와 다를 수 없다는 세상 이치가 청암부인에겐 충격 이상 전통과 역사의 상처로 각인된다.

이것은 남성가부장의 부재 상황에서 청암 스스로 여성가부장으로서 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 발생한다. 남성가부장의 부재가 주권을 상실한

22) Homi Bhabha,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탈식민주의 문화이론(수정판)』, 소명출판, 2012, 76-78면 참조.

www.kci.go.kr

국가의 불구성을 암시한다면, 시대적 억압 상황에서 전통의 공간인 '가문=매안마을=조선'의 창씨개명은 청암부인으로 하여 식민적 폭력과 억압에 대한 저항의 어머니임을 표상한다.

> 지구를 파괴하는 것으로 모자랐던 것일까? RDA(resources development administration, 자원개발위원회)의 교활한 야심은 태양계 너머 판도라까지 뻗어 나갔다. 판도라는 그 자체가 지닌 가치로 인해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 (중략) …
>
> RDA는 '사람들을 멍청한 노예로 만드는 것.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고, 소비하고, 군말 없이 살게하는' 지구에서의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루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목표는 판도라 정복이다.
>
> 판도라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언놉타늄은 지구에는 없는 고온 초전도체로 '꿈의 물질'로 불린다. 언옵타늄은 놀라운 에너지로 지구 산업에서 점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가고 있다. RDA는 언놉타늄 채굴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가졌고, 이를 통해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인다. 이것이 그들이 위험을 감내하면서 끊임없이 판도라를 침략하는 이유다.[23]

지구뿐 아니라 태양계 너머 판도라까지 개발과 개척을 명분으로 얻은 RDA의 이익은 미래 인류 자본주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폭력적인 식민지 개척이자 만행에 해당된다. 이것은 사이드가 강조했듯이 '식민주의는 근본적으로 토착민들과 그들의 땅에 대한 권리를 겨냥하여 행사된 지리적 폭력 행위'[24]이다.

---

23) RDA의 시작은 영세했다. 친구와 가족에게 돈을 빌려 사업을 시작한 21세기 실리콘 밸리의 작은 벤처기업 중 하나에 불과했다. 하지만 오늘날 RDA는 우주에서 가장 큰 조직이며, 비밀스럽게 또는 공공연하게 지구 산업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리고 구린내 나는 수법으로 판도라의 모든 개발과 상품 생산 및 수입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갖게 되었다. RDA는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을뿐더러 그 지위를 이용해 하늘을 지배하고 있다. 지구와 달, 화성 그리고 태양계의 소행성 지대에는 RDA가 건설한 수백 개의 공장 위성이 있으며, 이 공장들이 배출하는 오염 물질은 독성 비가 되어 지구에 내린다. 그리고 '컨소시엄'이라는 명목으로 끝도 없이 세력을 늘려가고 있다. Maria Wilhelm 외, 김현중 역, 앞의 책, 12면.

24) Edward Said, 김성곤・정정호 역, 『문화와 제국주의 Culture and Imperialism』,

www.kci.go.kr

<아바타>에서 거대한 자본(폭력)에 대항하는 판도라의 구성원은 그들만의 전통적인 방식, 즉 '에이와'와의 접속을 통해 모두와 결속을 다지고 식민지 극복이라는 대의를 실현한다. 이들의 방식은 순수하고 지혜로운 '자연의 유기적 네트워크'라는 전통적인 구원의 힘에서 시작된다. 이것은 인간의 감성과 사유의 개념으로는 단 한 번도 이룩해 내지 못한 비과학의 과학적 실현이다. '생명의 나무'로 명명(appellation)되는 유기체적 자연의 힘은 일찍이 인류가 사물을 향해 부여한 '호명(呼名, calling by name)'과는 차원이 다른 판도라의 생명과 생명 간에 이어져 있는 유기적 결합의 적합성을 함의한다.

이와 같이 <아바타>는 영적 존재 에이와를 중심으로 하여 나비족과 동식물을 하나의 네트워크 신경계를 이어가는 정신적인 매개물인 샤헤일루를 통해 판도라의 전통과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모두를 연결하는 전통의 유인자는 단일한 신경망을 통해 에이와에 접속함으로써 실현된다. 이를 통해 나비족의 결속과 생명을 이어줄 뿐만 아니라, 인류 식민자의 폭력적·야만적·파괴적 만행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 방식이 판도라의 '자연' 그 자체의 역사와 전통에 있음을 일깨워 준다.

따라서 판도라 행성의 '에이와'는 '자연'을 매개로 하여 삶의 영속성을 드러내거나 유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샤머니즘적인 '자연숭배'나 '정령주의'와는 전적으로 대별된다. 즉, '에이와'는 모든 동물과 식물들, 스톤 아치, 할렐루야 산, 호수와 대기를 관장하는 '궁극의 어머니'로 표상되며, 이와 동질한 선상에서 『혼불』의 청암부인은 매안마을·거멍굴·고리배미 인물들의 삶의 유기성을 내포하는 '대모'의 역할을 담당한다.

4. '동일자'의 저항과 디스토피아의 양가성

문학이든 영화이든 텍스트 내부의 생존자와 텍스트 외부 세계의 내러티브

창, 1995, 4면.

www.kci.go.kr

에 관한 역사성 진실 규명은 작중인물의 성격에서 드러난다. 이것은 랑시에르(Jacques Rancière)의 '문학의 정치'[25]에서 보다시피 '몫 없는 자'와 '말할 수 있는 자' 간의 쟁투의 과정에서 나타난다. 과거 식민화/지배에 있어서 식민지 정착민이나 식민지 농민을 뜻하는 '꼴롱(Colon)'은 문학의 정치에 있어 '몫 없는 자', 즉 '서발터니티(subalternity)'[26]로서 유용한 관점을 제시한다.

『혼불』은 매안의 양반층뿐만 아니라 거멍굴·고리배미의 민중들 역시 식민지 정부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었다. 식민지 토착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콜로나이저(colonizer)' 신세란 말 그대로 '타자(the other)'의 삶을 의미한다.[27] 그럼에도 이들이 타자의 멍에를 벗고 '동일자(the same person)'[28]의 자격을 얻기까지 저항을 고집하는 것은 텍스트 내적으로 지켜내야 할 역사와 '전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

25) 문학의 정치란 계급적으로 분할된 사람들 사이에서 가진 것 없는 자, 즉 '몫 없는 자'들이 분노하는 것을 의미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극복하고 저항할 수 있는 공동의 집단에 소속되면서 비로소 말하기까지의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몫 없는 자'가 '말할 수 있는 자'로 각성하기까지 시간과 공간, 위치와 정체성,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 등을 배분하고 재배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통과 감성의 적절한 분배를 의미한다. Jacques Rancière, 유재홍 역, 『문학의 정치(제2판)』, 인간사랑, 2011, 10-11면.

26) '서발턴(subaltern)'은 지배계층의 헤게모니에 예속된 상태의 지위를 말한다. 이와 동시에 노동자, 농민, 여성, 피식민지인 등 지배계층으로부터 분리되거나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간 주변부적 부류를 가리킨다. 박종성, 『탈식민주의에 대한 성찰 : 푸코, 파농, 사이드, 바바, 스피박』, 살림출판사, 2006, 60-61면 참조.

27) 식민지 정착민과 통치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들 콜로나이저는 꼴롱과 마찬가지로 식민지 정착민으로서 모호한 식민 범주(colony group)를 만들어 낸 장본인들이다. '식민 범주'는 대부분 정착민으로서 일정한 생활공간을 형성하였고, 식민지 토착민을 학살하거나, 토착민이 소유한 토지를 빼앗거나, 토착민의 노동력을 착취하였다. Robert Young, 김택현 역, 앞의 책, 46면.

28) 동일자(the same person)는 '타자(the Other)'의 반대 개념을 의미한다. 즉 식민지 상황에서 피식민자가 식민지 이전의 생활을 주체적 입장에서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말한다. 즉 언어, 문화, 도덕, 의식주 등 권리자의 행동 양식이 지배·억압·착취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는 환경을 말한다. 또한 이것은 식민자와 대등한 조건에서 문화적·도덕적·기술적·유전적 환경과 형질에서의 그 어떠한 차별이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서철원, 앞의 글, 135면.

www.kci.go.kr

『혼불』의 전통에 대한 근본적인 원칙은 텍스트 내적으로 존재하는 자들 간의 정서・소통・유대의 감성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역사와 전통에 관한 진실을 분할하는 것이다.

> 그리고는 한동안, 세운 무릎 위에 한 손을 얹은 채, 청암부인은 허리를 곧추세우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러더니 이윽고 말했다.
>
> "하기는 무엇이 귀한 것이고, 무엇이 천한 것이랴. 또한 양반은 무엇이고 상놈은 무엇이겠느냐. 귀천(貴賤)에, 반상(班常)에, 격조와 운치를 아는 풍류나, 도무지 그런 것이라고는 모르는 몰풍(沒風)이나, 모두 다 사람이 만들어 낸 편견이요 생각의 오랜 관습일 뿐, 본디 그 사물이 가진 본성과는 거리가 먼 것인지도 모르지. 소나무는, 그 종자가 무엇이든, 그것이 어디에 떨어져 어떻게 뿌리 박고 서 있든, 그저 오직 소나무일 따름, 저한테 단아하고 어여쁜 정자를 지어 주든 소똥 깔고 앉은 황소를 누렇게 매어 놓든, 거기 따라 소나무 자체의 본성이 변하는 것은 아닐 테니까 말이다. 그렇다면 사람은 또 사람대로 천연인으로서 다만 사람일 뿐, 무슨 무슨 분별이란 다 헛된 것이 아니겠느냐."
>
> —『혼불』 제4권 21면

청암부인으로 하여, 매안마을・거멍굴・고리배미 일대의 가부장의 지위를 구성하는 단초는 대모신에서 찾을 수 있다. 인류학적 차원에서 '대모신'이란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모성 중심의 생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생명력을 포괄하는 우주적 원리에서 궁극의 어머니를 지향한다.

청암부인은 한 사람의 여성이기 이전에 모성 이데올로기 안에 수용된 모성성의 의무를 지닌 어머니이다. 개별적인 여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오직 모성성 하나에 의존하는 어머니로서 청암부인은 '대모신'과 같이 매안마을 문중과 고리배미 상인들, 거멍굴 하층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관장하고 주도하며 인내하는 가부장적 정체성을 지닌 인물이다.[29] 여성영웅이 사회적

29) 청암부인은 단지 규방의 아녀자로 안락함만은 누린 인물이 아닌, 소설 내부적으로 유교적 이념을 구현하고 가부장적 권위 회복에 앞장선 인물인 것이다. 또한 가문의 종부이자 여성가부장으로서 당시 남성 지식들에게 요구되어 온 시대적 소명, 즉 향촌공동체의 근간을 바로 세우면서 구국의 길을 열어가는 지도자의 모습을 갖춘 대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복순, 「여성적 형식의 일 유형 : '대

www.kci.go.kr

가치규범이나 자신보다 우월한 존재에 의해 시련을 겪게 경우 그 분리와 시련의 이유는 여성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과 편견이 대부분이다.[30]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불』의 인물들이 겪는 억압·착취의 모순 상황은 청암부인의 대모원형에 뿌리를 내린 '동일자' 시선에서 지적하고 있다.

<아바타>의 경우 판도라의 모든 생태적 질서, 위계, 소통, 교감 등은 에이와를 통해 결정되거나 부정된다. 이것은 에이와에 의해 전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닌, 판도라 전체의 신경계 교감, 즉 샤헤일루의 접속에 따른 지식·경험·정서·감정 등 신경계 교감의 축적에 의해 이루어진다.

대표적으로 지구에서 건너 온 해병대 제이크 설리와 나비족 여인 네이티리(Netytiri)의 접속 또한 샤헤일루 신경망에 축적되어 나타난다. 샤헤일루의 신경계는 제이크의 존재를 '아바타'로 인식하지만, 생명의 나무가 불타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인류 침략자에 저항하는 나비족의 전사가 된다. 이 과정에 네이티리의 적극적인 개입은 저항의 다른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 "그들은 자기 집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거래하지 않을 거라고. 그들이 대체 뭘 원하겠어. 맥주? 청바지? 그들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아무 것도 없어. 여기서 내가 하는 모든 짓은 시간낭비야. 그들은 결코 홈트리를 떠나지 않을 거야."[31]

나비족에 대한 제이크의 말은 비탄에 가깝다. 나비족의 생태를 무참히 짓밟는 인류와 결코 화해할 수 없는 나비족의 본성은 선과 악이라는 인간 중심의 논리를 넘어 또다른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인류 침략자의 명분이 판도라에서는 식민 개척으로 재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가적 식민지 환상'[32]에서 비롯된다. 여기에는 인류 문명의 탐

모신(大母神) 찾기」, 『혼불, 그 천의 얼굴1』, 태학사, 2011, 276면.

30) 정병헌, 『여성영웅 형상의 신화적 원형과 서사문학사적 의미』,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79면.

31) 박우진, 앞의 책, 2010, 92면.

32) Homi K. Bhabha는 식민화/지배 아래 원주민, 피식민자가 자발적으로 개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첫째, 피식민자의 자격을 부정한다. 둘째, 탈식민의

www.kci.go.kr

색과 개척에 대한 저항으로서 이중적 환상이 존립한다.

제이크 설리는 인간과 나비족의 언어・정서・목적이 다른 '타자'의 관점에서가 아닌, 나비족과 동질의 모습으로 함께 행동하고 사유하는 과정에 획득한 '동일자'의 시선과 삶의 방식에서 '아바타의 본질'을 규명하고 있다. 이것은 영화 <아바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습과 생각, 혹은 시각으론 그들의 삶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으며, 이것은 그들의 원초적인 세계관과 생명관, 샤헤일루의 전통적인 교감과 소통, 에이와의 일체감 혹은 합일의 공동체적 삶의 양식에서 이해되기 때문이다.

문학이 아닌, 영화 텍스트를 '다른' 문학상으로 호명하는 문제설정[33]은 <아바타>를 '서발턴(subaltern)'의 목소리를 담은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아바타>의 디스토피아 근원에 깔려 있는 유토피아 정신은 고향과 같은 낙원의 정반대 지점에 있는 불길하면서도 어두운 상황을 내포한다. 여기에는 파괴와 착취와 억압과 폭력으로 얼룩져 있는 상처가 발견된다. 결국 인간이 찾아 나선 유토피아의 미래지향적 의미는 <아바타>에서 보다시피 인간적인 삶의 실현이 아니라 폭력과 착취가 난무하는 불길하면서도 어두운 디스토피아의 환경을 창조해 내고 있다. 따라서 '자연'을 거스르는 개척의 명분은 유토피아를 지향하면서도 궁극에는 디스토피아 세계관으로 귀결되는 양가적 의미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적 공간에서 정치・경제적 조건들과 협동하며 기능한다. 이처럼 '양가적 식민지 환상'은, 원초적인 욕구 혹은 욕망의 놀이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면서도 식민지적 환상으로부터 분열을 해명한다. Homi Bhabha, 나병철 역, 앞의 책, 192-194면 참조.

33) 장성규, 「한국문학 '외부' 텍스트의 장르사회학 : 서발턴 문학사 서술을 위한 시론적 문제제기」, 『현대문학이론연구』 64, 현대문학이론학회, 2016, 247면.

www.kci.go.kr

5. 결론

『혼불』은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생활 전반에 제국주의 영향을 보여 주었다. 전통의 복원 문제가 민족정체성 회복을 암시하는가 하면, 우리 민족의 세시풍속·관혼상제·역사·예술 등 전반을 포괄하면서 식민주의 비판을 실증하는 단서로 작용하였다.

<아바타>의 판도라 행성은 인류 문명과 다른 차원의 관념과 시각적 이미지를 보여 주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약탈하고 착취하는 인류의 행위는 나비족의 삶의 목적이 나눔과 베품, 소통과 교감을 적시하도록 하였고, 이것은 인간의 삶과 대조를 이루었다. 또한 나비족의 삶은 '샤헤일루'라는 신경계 접속을 통한 대자연과의 교감을 중시하는 동시에 생명의 나무로부터 궁극적으로는 대모신에 이르는 관계를 보여 주었다.

『혼불』이 다양한 전통·풍속 소재의 활용 측면에서 비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의 복원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일제강점기 민족정체성 회복과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청암부인은 일제강점기 시대적 혼란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성가부장이라는 근대적 의미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새롭게 구조화하고 있으며, 이를 긍정하는 인물상 자체가 전통의 복원과 관련하여 탈식민성에 근접해 있었다. 이것은 식민지 상황에서 여성성의 발휘가 전통 혹은 자연을 매개로 하여 매안마을 문중과 고리배미 상인들, 거멍굴 하층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관장하고 주도하며 인내하는 여성가부장으로서의 '대모신'의 역할에서 드러났다.

『혼불』과 마찬가지로 <아바타>에서도 종족(민족)의 정체성 회복과 전통의 계승이라는 삶의 목적론적 타당성은 인정된다. 이것을 인류의 관점에서 민족정체성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혼불』의 '청암부인'과 <아바타>의 '에이와'의 존재에서 공통적으로 '대모신'의 역할이 중요한 문제로 드러났다. 또한 '청암'과 '에이와'의 상관성은 전통의 복원 혹은 종족(민족) 정체성 회복이라는 맥락에서 긴밀한 결속력을 지니고 있었다.

<아바타>는 단적으로 판도라별의 나비족에 대한 인류 침략사의 투영이었

www.kci.go.kr

다. 이런 측면에서 영화 <아바타>는 '아바타'의 개념을 빌어 제국주의의 본질을 지구가 아닌 다른 별(판도라)에 투사함으로써 인간세계의 만행을 새롭게 조망하는 대체의 의미로서 탈식민성을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이 탈식민의 문제는 문학이나 영화 어느 쪽에서든 텍스트 내적으로 드러나는 식민 극복의 단서를 구체화하여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광범위하게 적용할 경우 이론 자체에 함몰되거나 텍스트 본질의 문제가 이론에 덮여질 소지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혼불』과 <아바타>의 모성성과 관련하여 '대모'의 성격을 탈식민의 주된 관점으로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혼불』에서 드러나는 탈식민의 핵심은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전통·민속·문화·언어의 변질 혹은 파괴의 역사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자 함에 있다. <아바타>의 경우 인류 침략자로부터 자신들의 별을 지키고자 하는 나비족의 극복·저항의 텍스트에서 그 의미를 획득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혼불』과 <아바타>는 오랜 시간대에 걸쳐 이어져온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자연과의 교감·접속·소통을 통한 민족 혹은 종족의 정체성 회복에 기여하고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혼불』과 <아바타>는 대모신과 궁극의 어머니라는 대조/비교의 관점에서 탈식민성이 설명된다.

www.kci.go.kr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최명희『혼불』, 제1권, 제2권, 제4권, 한길사, 1996.

Wilhelm, Maria · Madison, Dirk, 김현중 역,『아바타 : 판도라의 역사와 생태에 관한 기밀 보고 Avatar: a confidential report on the biological and social history of Pandora』, 랜덤하우스코리아(주), 2010.

2. 단행본 및 논문

김복순,「여성적 형식의 일 유형 : '대모신(大母神) 찾기」,『혼불, 그 천의 얼굴1』, 태학사, 2011.

김호영,「영화 <아바타>에 나타난 신화성 연구」,『인문연구』72, 2014.

박우진,「보지 않기 위해 보기, 몽상 혹은 쓰나미로서의 새로운 영화 : 한국의 미디어 지형 속에서 <아바타> 찾아가기」,『아바타 인문학』, 자음과 모음, 2010.

박종성,『탈식민주의에 대한 성찰 : 푸코, 파농, 사이드, 바바, 스피박』, 살림출판사, 2006.

서정섭,「『혼불』의 수정 과정과 언어 고찰」,『혼불의 언어세계』, 혼불기념사업회 · 전라문화연구소, 2004.

서철원,『『혼불』의 탈식민성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6.

이경원,『검은 역사, 하얀 이론』, 한길사, 2011.

장성규,「한국문학 '외부' 텍스트의 장르사회학 : 서발턴 문학사 서술을 위한 시론적 문제제기」,『현대문학이론연구』64, 현대문학이론학회, 2016.

정병헌,『여성영웅 형상의 신화적 원형과 서사문학사적 의미』,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Bhabha, Homi K, 나병철 역,『문화의 위치-탈식민주의 문화이론(수정판)』, 소명출판, 2012.

www.kci.go.kr

Moore-Gilbert, Bart, 이경원 역,『탈식민주의, 저항에서 유희로 Postcolonial Theory: Contexs, Practices, Politics』, 한길사, 2001.
Neumann, Erich, 서승옥 역,「원형적 여성과 대모」,『페미니즘과 문학』, 문예출판사, 1988.
Keegan, Rebecca, 오정아,『제임스 카메론, 퓨처리스트 The Futurist』, 21세기북스, 2011.
Rancière, Jacques, 유재홍 역,『문학의 정치(제2판) Politique de la litterature』, 인간사랑, 2011.
Robert, J.C. Young, 김택현 역,『포스트식민주의 또는 트리커니넨탈리즘 Postcolonialism. An Historycal Introduction』, 박종철 출판사, 2005.
Rowlands, Mark, 조동섭 외,『SF 철학 The philosopher at the end of the universe』, (주)북새통, 2005.
Said, Edward W, 김성곤・정정호 역,『문화와 제국주의 Culture and Imperialism. London, Chatto & Qindus(1993, 1-15)』, 창, 1995.

www.kci.go.kr

【Abstracts】

A Study on the Post-coloniality of『Honbul』and <Avatar>

Seo Cheol-won

This study aims to elucidate the postcolonial aspects of the novel『Honbul』and the film <Avatar> by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 two. What binds the two works with the common denominator of post-coloniality is how real challenges are overcome by means of femininity or maternity.

『Honbul』can be approached through the perspective of the 'Great Mother Goddess' found in Madame Chungam, whereas <Avatar> can be approached through the role of the 'ultimate mother figure' embodied by Eywa who guides the tribe of Na'vi.

This viewpoint represents a form of resistance as 'colonized subjects' against the reality of forced colonization, which simultaneously shows that『Honbul』and <Avatar> retain a 'tradition relating to post-coloniality' in literary and cinematic contexts, free from a 'uniform understanding.'

Key words : Great Mother Goddess, national identity, Honbul, Avatar, Chungam, Eywarestoration of tradition.

이 논문은 2016년 9월 29일에 투고되었으며, 2016년 11월 4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6년 11월 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www.kci.go.kr